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유주*	학번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마닐라
파견대학	라살아라네타대학	기간	2016. 7. 23(토) ~ 8. 20(토)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Victoneta Ave.에 위치하고 있으며 SM North라는 대형마트와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규모와 시설은 한국에 비교한다면 실망할 것이지만 필리핀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그 곳에선 좋은 시설이란 것을 알 것입니다. High school 학생들과 캠퍼스를 같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들 깔끔하게 교복을 입고 다니고 한국학생들을 보면 반갑게 한국어로 인사를 해 줄 정도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p>
수업	<p>수업은 반 배치고사 후 성적에 따라 수준별로 배치됩니다. 이렇게 정해진 반은 앞으로 끝날 때 까지 함께 하게 되며 나중엔 가장 친해집니다. 혹자는 반 별로 교재부터 시험까지 다르기에 반 배치고사를 대충 치루라고 하는 분도 있었지만 수준에 맞게 배우는 것이 할 땐 힘들어도 나중엔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p> <p>선생님들은 필리핀에서 어느 사람을 봐도 발음이 가장 좋으시며 필리핀 내에서 인터넷 강의도 따로 하는 분도 계실 정도로 수준이 높으시다고 생각합니다.</p> <p>과제는 반 별로 다른데 Essay는 공통적으로 일주일에 2번 작성하며 개인적인 writing 시간에 선생님이 따로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 많아 타 학생들과 달리 교재는 과제로만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Vocabulary test 준비를 위해 Speaking 선생님이 문제를 따로 내주시기도 했습니다.</p> <p>마지막으로 EOP(English on Policy)를 준수해야합니다. 지키지 않을 시 Yellow card를 부여하여 차후에 나머지 공부를 시킵니다.</p>
Activity	<p>Activity는 하나도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Activity는 3종류가 있었습니다. 팍상한 폭포(당일), 따가이따이(당일), 민도르 섬(2박 3일 예정)</p>

	<p> 파악한 폭포는 활동시간은 1~2시간이고 나머진 왕복 8시간 넘게 도로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따가이따이는 말을 타고 화산섬을 올라가는 건데 너무 더워서 힘들었다는 사람도 있었고 경치도 보고 좋다는 사람도 있었 습니다. 모두가 기대하던 Activity는 민도르 섬이었습니다. 악기상 속에 출 발 2틀 전 가기로 확정되었다는 통보와 함께 설명회도 들었지만 전 날 취 소되었습니다. 비용은 각 3~10만원정도 되었습니다. 선생님들도 Activity 갔다 온 친구들을 위로해주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단기어학연수를 하며 모 든 것이 좋았는데 이 부분만 보완되면 완벽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 필리핀은 March~June이 여름이라고 합니다. 제가 갔을 때 한국은 여름 이었지만 현지는 우기였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오히려 우기가 그나마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날씨라고 합니다. 첫 주는 해가 너무 찜찜해서 더 웠지만 날이 갈수록 시원하고 나중엔 비가 많이 와서 감기에 걸린 친구들 이 많았습니다. 한국에 귀국한 순간 필리핀이 정말 시원했다는 것을 깨달 았습니다. </p>
안전	<p> 필리핀 내는 현재 정권이 바뀐 것에 엄청난 호의를 갖고 있습니다. 새로 운 정권의 가장 큰 목표는 치안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모든 대형마트 심 지어 패스트 푸드점에도 보안요원들이 상시 배치되어있고 학교엔 경찰들 이 주기별로 순찰을 오는데 경찰보단 보안요원이 더 믿음직합니다. 가면 학교 뒤편 야시장에 총기사고가 많이 발생하니 가지마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 우발적인 범죄가 아닌 마약거래상들 간의 계획적인 범죄가 대다수이 니 조심하되 아예 가지마야 할 정도는 아닙니다. </p>
숙소	<p> 학교기숙사(<input checked="" type="radio"/>) 홈스테이 (<input type="radio"/>) 외부 숙소(<input type="radio"/>) 기타(<input type="radio"/>) 숙소 시설은 한국에 비한다면 실망하겠지만 필리핀 내에선 꽤나 좋은 시 설이라 생각합니다. 청소도 평일에 정해진 시간에 아주 깨끗하게 해주시 며 빨래는 매일 저녁 9시 이후 아주 저렴한 금액에 빨래방 아주머니가 오 시는데 discount도 많이 해주시고 친절하십니다. 통금은 주중 관계없이 PM10시이며 엄격합니다. 저는 1주차가 넘어서야 알았는데 숙소 내 베드 민턴장, 농구장, C카페(커피 파는 곳 아님), 헬스장이 있어 통금 이후에도 시간을 보낼 곳이 있으니 통금은 꼭 지켜야합니다. 지키지 않을 시 나머 지 공부를 해야 하며 12시가 지나서 들어올 시 학교에 무단으로 보고를 합니다. </p>

식사	<p>학교식당(○) 홈스테이 () 외부식당 (○) 기타()</p> <p>숙소 내 한국 아주머니가 계십니다. 가기 전 후기에서 너무 맛있어서 되려 살찌왔다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솔직히 그것은 과장된 것이고 그냥 타국에서 한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먹었습니다. 필리핀 음식은 대체적으로 굉장히 짜고 맵지 않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어 신라면을 먹었는데 한동안 매운 음식을 일절 안 먹어서인지 굉장히 맵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가장 맛있었던 음식은 SM North 내에 Gerry's Grill에서 판매하는 Seafood Gambas라는 음식이었습니다. 한국에 와서도 생각나는 유일한 음식입니다.</p>
교통	<p>학교는 숙소 바로 앞에 위치하여 그냥 걸어가시면 되고 문제는 시내교통입니다. 교통체증의 수준이 심각합니다. 문제는 통금입니다. 주말에 멀리 나가실 경우 일찌감치 아침에 놀러가서 5시 전에 택시를 타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앞에서 BPI에 가는 지프니는 6페소이며 BPI에서 SM North 가는 버스도 학생할인 해줍니다. 트라이 시클은 타고 있는 정원이 돈을 내는 것이니 이왕이면 4명 꼭 채워 타는 것이 좋습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여행자보험,유학허가증,교재비,전기세,시설관리비,공항세	741,350	출국 전 사전 납부
외식, 교통비, 군것질, 기념품(과자, 간식거리, 화장품 약 3천 페소)	500,000	45만원 환전해 갖고 후에 돈 남는 친구들에게 5만원어치 페소 구매
합계	1,241,350	처음 납부한 예치금 200,000원 차후에 환불 해줌.

5. 출국 전 준비사항

페소 처음에 만 페소 환전 나머지 달러로 해오라고 하는데 그냥 몇 천 페소만 페소로 하고 아니면 그냥 다 달러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처음 도착한 날 바로 숙소로 가고 다음 날 바로 환전소로 데려다 주기 때문에 처음부터 페소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환전은 적어도 50만원은 해가는 것이 좋습니다. 아껴 쓰자는 생각으로 갈 시에 수수료 6천원 넘게 내며 인출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이번 단기어학연수는 매우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처음엔 같은 과 후배와 함께 중국을 희망했었습니다. 하지만 국제교류본부 영어권 담당 이용현 선생님의 설명회를 듣고 필리핀으로 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선생님은 설명과 함께 라살아라네타 대학은 아니지만 필리핀 내 타 대학에 다녀온 한 학생의 영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영상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필리핀으로 마음을 돌리고 두 번째 고민은 마닐라대학과 라살아라네타 대학 간의 고민이었습니다. SNS에도 글을 올려 궁금한 점을 물어보려 했지만 당시엔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걱정과 고민 속에 다녀온 결과 라살아라네타 단기어학연수는 큰 선물이었습니다.





첫째로 해외에 이렇게 장기간 가본 적이 없었던 것도 있었고 다양한 경험과 함께 훌륭한 선생님들께 영어도 배우고 무엇보다 영어를 원 없이 사용해볼 수 있었습니다. 하루는 r 발음을 잘 하시는 선생님들이 부러워 혀에 쥐가 나도록 하루 종일 연습해보기도 하고 화요일, 목요일이 되면 Cafe에 가 머리를 쥐어짜며 아는 문법, 모르는 문법 그것도 모자라 사전에서 더 좋은 단어를 찾아가며 Essay를 썼던 기억들이 납니다.

마닐라 투어를 기점으로 필리핀에서 돌아다니는 법을 조금 익히고 BGC 혹은 저희 대학교에서 같이 간 친구들과 함께 더욱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난생 처음 와본 타국을 열심히 돌아다니며 TV에서나 보았던 그들의 삶을 눈 앞에서 보고 듣고 직접 느끼며 그간의 삶을 돌아보던 시간도 가졌습니다. 필리핀은 무엇보다 사람들 자체가 여유롭기 때문에 음식점을 가도 카페를 가도 굉장히 느립니다. 신기한 것은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을 때였습니다. 한 번 쯤은 이렇게 쉬어가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갔던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각기 다른 곳에서 우선 영어라는 목표를 두고 이곳에 왔기에 수업할 때엔 다 같이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물론 간혹 한 번씩 꾀병을 부리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다 같이 열심히 하는 분위기 속에서 공부를 하니 더욱 동기부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필리핀에 가기 전 '실력은 본인이 얼마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후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이 정말 맞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숙제 다 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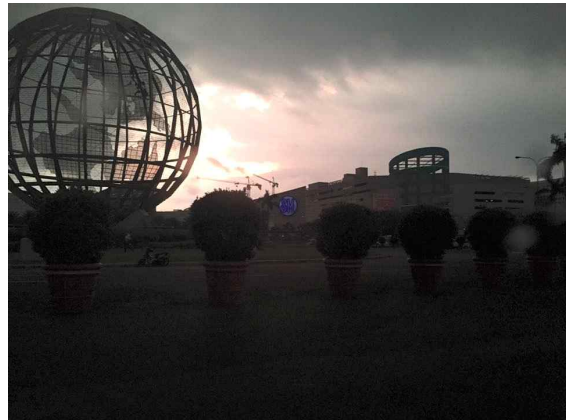
공항에 도착할 때부터 짧은 거라곤 생각했지만 4주는 정말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귀국 할 때도 짧았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좋았으니 이런 생각이 남아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반면에 이 짧은 기간 동안 정말 많고도 값진 경험들을 했습니다. 길거릴 거닐다가 사진을 같이 찍자는 사람도, 7500원이면 고급음식점에서 메뉴 하나를 먹을 수도, 동남아시아에서만 볼 수 있는 멋진 풍경을 좋은 친구들과 함께 보기도 했습니다. 물론 나는 해외여행 많이 가봤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함께였기에 더욱 좋았었다고 생각합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p>마닐라 투어</p>	<p>순천향대 친구들</p>
	
<p>SGC Classmate와 함께</p>	<p>Venis</p>



BGC Classmate와 BGC



Mall of Asia의 석양